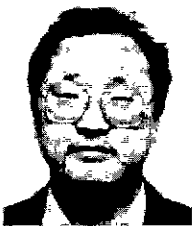


□ 특별기고 □

데이콤 경영권의 향방은?

동아일보사 김학진*



국내 제2의 유선통신업체 데이콤의 주인은 누가 될까. 신년 벽두 정보통신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 현대 LG 등 재계의 거인들이 데이콤 경영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살바싸

움을 벌이고 있어 이 문제가 정보통신업계 재편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월 23일 국회 개인휴대통신(PCS) 청문회에서 LG그룹은 집중포화를 맞았다.

지난 96년 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당시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정기준을 3차례나 변경하면서 LG 등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 의혹의 하이라이트는 이전장관이 우겨서 도입한 '전무(全無) 채점방식'. 청문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어느 한 업체는 만점을 주고 다른 업체는 0점을 주는 내용이다.

결국 서류심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섰던 삼성-현대의 연합컨소시엄인 에버넷은 청문심사에서 0점을 받아 LG 텔레콤에 역전당했다. 시험을 잘 보고도 편지에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21세기 재계의 판도를 좌우한다'며 재벌들이 앞다투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여서 이처럼 어이없이 결과가 뒤집어 졌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런 심사과정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대외비'로 붙여져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당시 에버넷 사장이었던

남궁석씨가 지난 연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나와 '인생만사 새옹지마'란 고사성어를 실감나게 했다. 남궁장관은 이전장관의 비리를 시인하면서 "정책적으로 잘못됐으며 외국사람이 알까봐 창피하다"고 말했다.

LG는 데이콤 위장지분과 미국 넥스트웨이브 투자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PCS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데이콤 지분을 5% 미만으로 줄이고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정통부에 제출했는데 그후에도 위장지분을 포함, 30% 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LG 관계자가 데이콤 비상근이사로 경영에 참여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막내사위 브투스 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넥스트웨이브 투자건도 LG로서는 아픈 대목. 총 1억3천5백만달러의 투자액 중 LG가 절반 가까운 6천5백만달러나 부담해 "PCS 사업권을 따내려고 권력층에 헌납한 '지참금'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더구나 넥스트웨이브사는 주파수경매에 너무 비싼 금액을 써내는 바람에 사업 시작도 못해 국내 업체들은 아까운 돈만 날린 셈이 됐다.

업계에서는 "청문회에서 LG가 곤욕을 치르는 것이 최근 반도체 빅딜과 데이콤 경영권 향방을 둘러싼 재계의 미묘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삼성 현대 등이 로비를 통해 LG를 '우회공격'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반도체 빅딜에서 LG반도체를 현대에 넘겨준 대가로 LG가 데이콤을 인수하는데 정부와 현대측의 협조를 구했다는

*정회원·편집위원, E-mail: jeankim@donga.com

것. 정부는 LG의 데이콤 5% 지분제한을 풀어 주고 현대도 현대전자가 보유한 데이콤 지분 6%를 LG에 넘겨주는 것이 '보상빅딜'의 스토리다. 이렇게 되면 LG는 공식적으로 보유한 데이콤 지분 5%와 현대로부터 넘겨받을 6%, 그리고 관계사 등에 숨겨놓은(?) 지분을 합쳐 40% 가까운 지분을 확보, 명실상부하게 데이콤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인'이 된다.

LG의 데이콤 인수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삼성이다. 삼성은 그동안 데이콤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LG가 데이콤을 독식하는 것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4년전 데이콤 경영권을 놓고 LG와 동양이 한차례 혈전을 벌였을 때 삼성은 은근히 동양을 편들어 LG가 데이콤을 차지하는 것을 막았다.

지난해 7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기간통신사업자 10% 지분제한'이 해제되자 삼성은 재빨리 데이콤 주식을 모아 동양에 이어 데이콤의 제2주주가 됐다. 최근 LG가 청문회 등으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동양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13%로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삼성 관계자는 "PCS를 LG에 빼앗겨 통신서비스업 진출이 막혀 버렸는데 데이콤마저 LG에 넘어가면 삼성은 정보통신산업에서 LG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더 이상 만회할 찬스가 없다"고 말했다. 당장 데이콤을 인수할 의사는 없지만 LG에 넘어가는 꼴은 결코 봐서 할 수 없다며 일단 시간을 끌자는 것이 삼성의 속셈이다.

현대도 데이콤에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몽헌 현대전자 회장은 금강산관광사업에 이어 대북진출이 본격화되면 북한에 통신망을 건설하고 통신서비스를 담당할 기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통신사업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당장은 반도체 빅딜을 마무리하는 것이 당면과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호락호락 데이콤 지분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삼성 현대의 견제속에서 LG가 데이콤을 인수하려면 우선 PCS의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부로부터 3년전에 스스로 약속한 '데이콤

지분 5% 제한'을 무효로 하는 허락을 얻어내야 한다. LG는 PCS청문회가 끝나고 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데이콤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를 최대한 피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이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재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벌이는 것일까.

데이콤은 시외, 국제전화와 전용회선 온라인사업 등 유선분야 기간통신사업자로 몇 년전만 해도 한국통신에 이어 통신업계 '부동의 2위'였으나 최근 휴대전화업체들의 급성장으로 점차 서열이 뒤로 밀리고 있다. 유선전화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시외, 국제전화 시장경쟁에서 한국통신에 뒤지고 가격 채산성마저 떨어져 경영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 이 때문에 지난해 외자유치를 하려고 경영진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외국업체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데이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고 보기 힘들다. 데이콤이 운영하고 있는 PC통신 '천리안'은 가입자가 1백30만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미국의 아메리카온라인(AOL)이 뉴욕증시에서 제너럴모터스(GM)와 거의 맞먹는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듯이 천리안도 갈수록 시장 가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망한 사업이다.

또 데이콤을 인수하면 데이콤이 최대주주(10%)로 있는 제2시내전화사업자 하나로통신에도 욕심을 내볼 수 있다. 아무리 유선전화가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통신산업의 근간은 유선통신망이다. 데이콤의 시외, 국제전화와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를 합칠 경우 한국통신의 경쟁상대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다.

데이콤이 세계적인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과 합작으로 추진중인 위성방송사업, 데이콤인터넷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 등도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증시에서도 데이콤은 한국통신보다 높은 6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과 재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데이콤 경영권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 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